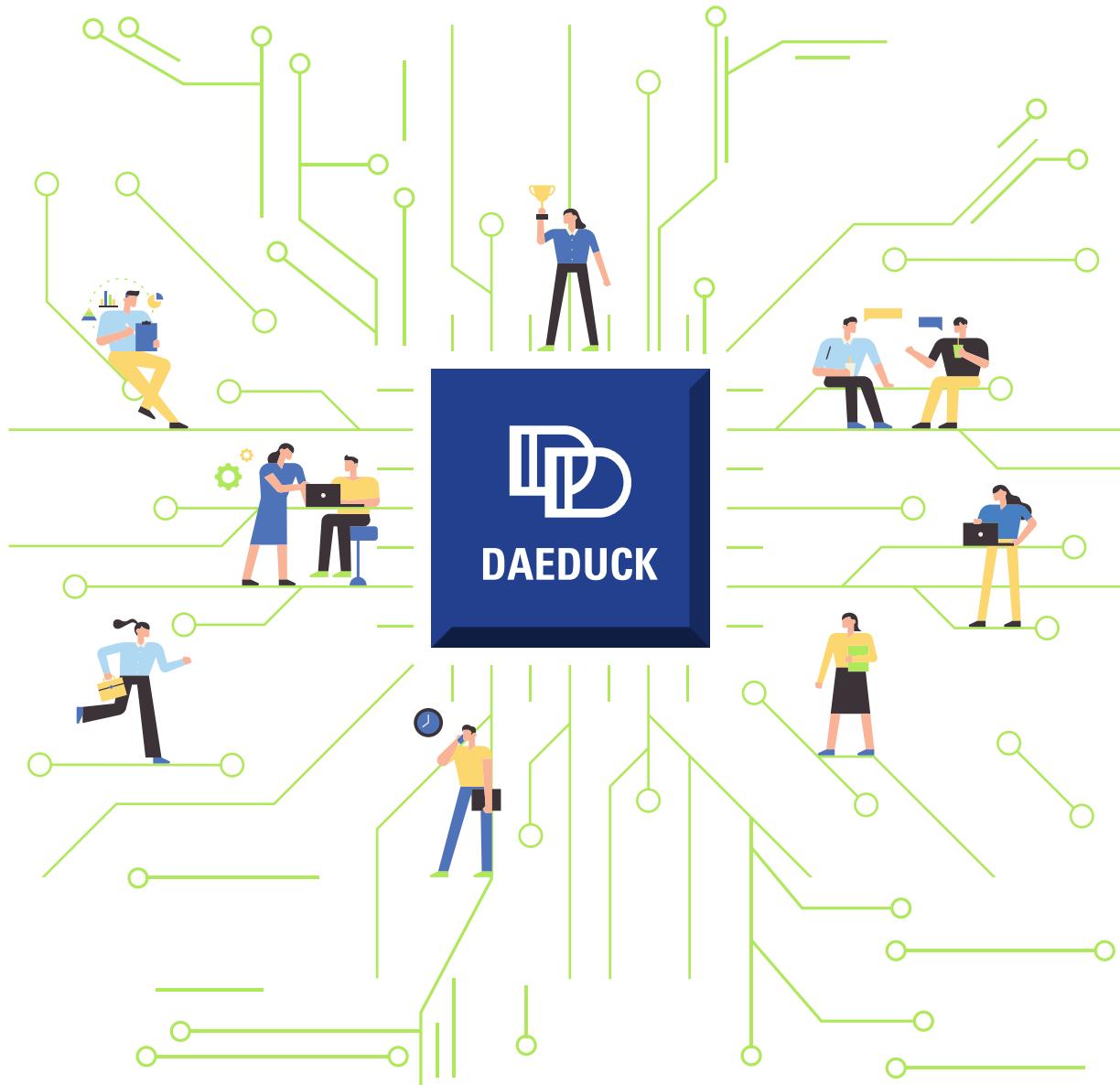


사람과 기술, 대덕과 사람

DAEDUCK Story

소식지 대덕인사이트 3+4월호 Vol. 34



발행일 2022년 3월 4일
Publis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관리팀 총무그룹
Editor 차지혜 TL
T.031-8040-0649 F.031-8040-8082

- | CEO메시지
- | 대덕인사이트
- | 추천도서
- | 김정식 회장님 추모 3주기
- | 슬기로운 대덕 생활
- | 집으로 가는 길
- | 어디까지 가봤니?
- | 건강한 내일

디자인 귀기울

www.daeduck.com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협업’



22년 기능 조직으로 변화

기능 조직: 조직이 각 업무기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구조
조직구성원이 각 업무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지식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함
⇒ **기능조직은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있지만,
상호 부서간 협업이 있을 때, 그 성과가 매우 좋게 나타남**

목표 달성을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할 때 이루어짐

개인의 이익, 자기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부서이기주의 탈피해야 함
리더는 부서의 목표와 전사 목표가 상충될 때, 전사적 관점의 업무 추진이 필요
⇒ 역지사지(상대방)를 생각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방향으로 함께 해야 한다.
리더는 나 < 우리 부서 < 우리회사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해야 겠습니다.

사일로 현상 유래 : 곡식을 저장해두는 큰 탑 모양의 창고, 안의 곡물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들어 줌,
팀 간 벽을 치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 현상. 즉, ‘부서이기주의’

타 부서 동료는 경쟁자가 아니고 업무를 도와주는 파트너

◆ 동료평가를 시작하는 이유

QCD 목표달성을 협업이 필요

타 부서에 요청한 것은 내 일의 마무리가 아님(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함)

임원 리더들은 해당부서 사원들 앞에서 타 부서 또는 타 부서 구성원을
질시, 질타, 질책, 흉을 보면 안됨(협업의 가장 큰 장애)

스마트 공장 패밀리혁신 T/F 활동 성황리에 마쳐

작년 11월 23일 시작했던 스마트공장 패밀리혁신 T/F가 올해 2월 1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회사는 PCB공급 확대를 위한 수율향상과 리드타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삼성전자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율, 리드타임, 시스템, 설비, 물류에 대한 개선과제 177건을 도출하여 현재까지 완료율 89%를 달성하였다. 품질, 리드타임, 시스템 혁신은 T/F 활동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물류 부문은 장기 과제로서 올 12월 내 완료 예정이다. 아울러 동반혁신을 위해 우리 협력사 시몬테크와 에이아이티도 함께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협력사와 수익을 개선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지속할 예정이다.

1

사내 코로나 확진자 동향

2

오미크론 확산과 정부의 방역 대응이 전환(격리 완화)되면서 당사에서도 검사지침과 격리기준이 변경되었다. 사내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를 선별하여 사내 자가 신속 항원 키트를 지급하고 있다. 제조직 대상으로 밀접 접촉자는 5개, 전사원 대상으로 단순 유증상, 대면자는 1개를 지급하고 있다. 특이사항 발생시 공장별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감염병은 3월 정점을 예상하고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한다.

| 추천도서

RECOMMENDED



BGA QC그룹 경방지거 TL이 추천하는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메타버스**

김상균 저 / 플랜비디자인 / 2020.12.18



추천이유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어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메타버스의 비중은 필연적으로 점점 거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응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각 영역을 알기 쉽게 실제 IT 서비스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흥미/재미를 제공하는 뜨는 것들의 세상으로써 메타버스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스토리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국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상, 아날로그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네 개 디지털 지구로의 여행, 신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현기증이 나실 수 있으나, 생소한 것을 처음 접할 때의 설렘 같은 자연스런 현상이니 두려워 마시고, 메타버스를 끝까지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회장님 추모 3주기, 회장님이 남기신 것들

회장님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다

해동첨단과학관 착공식 진행

지난 2019년 고 김정식 회장님께서 AI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대에 500억을 기부하셨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 공간인 해동첨단과학관(가칭)이 3월 21일 착공식을 시작한다. 공학관은 비(非)공대생도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실과 창업 기업이 입주하는 융합 공간으로 탄생한다. 공학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약 3,50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대 AI센터 해동첨단 과학관(가칭) 조감도

김정식 회장님께.

김정식 회장님, 편안하십지요. 회장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는 벌써 골형을 앞둔 사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 김정식 선배님의 장례식에 다녀오던 일, 온 세상을 불러울들이던 노호과 명달이 불기 만개하던 봄꽃을 보며 저는 김정식 선배님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많은 것을 일구고 베푸셨던 선배님의 삶을 넓은 기업가가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은 삶에서 기억이 자리를 비운 선배으로 이끄는 날이 우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정식 선배님,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멋진 선배님의 장학금을 받아 은혜에 보답 갈수록 살아가겠습니다.
매 학기, 장학금 감사 편지는 선배님께 쓰는 것과 동시에 제 내면의 자기 반성과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선배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 한명의 후배가 무사히 대학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점에 왔습니다. 선배님의 삶을 굉장히 잘 살펴; 장학금으로 은혜하며 차목히 살았던 지식과 경험을 둘 살아,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무럭히 물비를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친절을 가득 담아 굳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학을 반복하는 별이 되신 김정식 회장님께, 후배 이유림 읊립.

서울대 해동 장학생 이유림 학생 편지 중



안산 대덕과학관 리모델링

안산 대덕과학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인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이다.

안산시는 공모선정으로 확보한 3억원을 투자해 스타워즈를 모티브로 작지만 강한 과학관을 형상화했다. 과학관은 초, 중, 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교 밖 탐구,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를 촉진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의 지식, 정보, 재능이 지속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탄생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지구를 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나부터 실천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교육그룹 차상미 TL이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1.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게 길어지고 그만큼 음식배달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산처럼 쌓이는 일회용품을 보고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구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그저 작은 반창고를 불이는 것조차 못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 보고자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2. 재활용품 사용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장점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재활용품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예전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 쉽게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한가지 추천한다면?

회사나, 집 주변을 보면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쓰레기라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가장 쉽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

BGA 이미지 김명규 파트장이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1. 자전거 출퇴근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눈,비 올 때를 제외하면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한지 5년 이상 되었어요.



2. 자전거 출퇴근의 장단점

운동 시간이 부족한데, 출·퇴근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니,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적 효율이 좋아요.
또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아요
단점은 여름날 땀이 많이 나면 공정 출입 전 샤워시설이 없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위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3.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실천하고 있는 다른 환경보호 활동이 있나요?

남해를 여행 하다 플라스틱 및 쓰레기가 몰려오는 걸 보고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하려고 합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가는 길

자원관리그룹 이도규TL의 퇴근길

이번호는 출근길 대신 퇴근길을 따라가 본다. 대덕전자에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다. 출근할 때 왔던 길을 되돌아 가는 것 뿐인데도 그 풍경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지난호 김정태TL의 출근길에 이어 이번 <대덕스토리>에서는 이도규TL의 퇴근길에 동행한다.



88:20

퇴근이다.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 6km너머 목적지가 있다.

88:35

첫 번째 툴게이트다.
여기에서부터 막힌다.

88:48

날은 아직도 추운데 해가 길어졌다. 퇴근길 노을이 눈에 들어온다.



88:58

두번째 툴게이트.
여기도 막힌다.

88:00

드디어 동네 입성

88:05

동네가 한산하다.
사람도 없고 조용하다.

88:20

주차장을 지나 드디어
집으로 들어간다.

88:25

퇴근 후에는 역시 맥주!
오늘 하루 마무리는 이렇게!!

|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

바다, 빛, 유리가 함께 반짝이는 곳



대부도 유리섬 박물관

요즘은 참 다양한 테마의 볼 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인터넷과 각종 SNS를 잠시만 들여다봐도 가고 싶은 곳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 많은 정보 중 <DAEDUCK Story>에서 안산의 가볼만한 곳을 콕 찍어 보았다. 봄, 온 세상이 연두색으로 변해가고 코 끝의 바람에서도 녹은 땅 냄새가 나는 계절에 대부분으로 가보자. 각양 각색의 재미가 있는 대부분 중에서도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 유리섬 박물관이다.

대부도는 드라이브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지만, 걸으며 만나는 풍경도 멋진 곳이다. 대부도 해솔길5코스를 걷다보면 대부도 유리섬 박물관을 지나게 된다.

잉, 램프워킹, 글라스페인팅, 선딩 등의 다양한 유리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유리공예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유리섬 박물관은 43,000m²의 드넓은 공간에 최고의 유리조형작가들의 예술혼이 녹아 숨쉬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이다.

1200도가 넘는 고온의 유리를 블로우 파이프를 이용해 다양한 유리 조형물을 제작하는 과정 전체를 공연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고 블로

우리섬 박물관 즐기기 Tip. 유리공예 시연은 시간이 정해져 있느니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다.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상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 날씨가 좋은 봄이라면 특히 야외 조각 공원도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 산책코스처럼 걸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데 사진 찍기 좋은 조각상들이 많다.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입장료: 대인 10,000원, 청소년 9,000원, 소인 8,000원, 유아 무료

관람시간: 하절기(4월~9월) 화~일 09:30~18:30
동절기(10월~3월) 화~일 09:30~18:00

문 의: 032)885-6262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식중독 예방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물은
끓여 마시기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
다른 식재료에 뛰지
않게 주의하기



화장실에서 설사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고, 주변 소독하기



구토물은 소독액을 적신 종이
타월로 5분간 덮은 후 닦고
비닐봉투에 담아 밀폐 후 폐기



문고리, 수도꼭지 등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하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고 증상이 나아진 후,
2~3일간 공동생활 피하기

사람·환경 예방



외출 후에는
바로 씻고 옷 세탁하기



실내 흡연하지
않기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사용하기



KF94 마스크
착용하기

황사 예방에 좋은 음식



녹차



고등어



마늘



해조류



사과

Quiz

34호 퀴즈

**아래 내용에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는 있지만 성냥은 없다
숫자는 있지만 문자는 없다
바늘은 있지만 실은 없다
시는 있지만 소설은 없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섬유향수 5종세트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보담당자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취미소개, 도서후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보 담당자 : 총무그룹 채지혜 TL

33호 당첨자

안전환경그룹 **이혜성** TL

BGA YE그룹 **이지현** TL

RFA팀 **박병엽** TL

요소기술팀 **박재완** TL

MLB출하검사 **노종현** 기사

33호 퀴즈 정답

경영방침 : 책임완수와 질적성장

실천목표 : 나의 책임 완결, 과학적 시스템적 사고의 습관화, 학습, 반성, 개선을 통한 성장